



법주사 주지 진산식
 지명 법주사 주지는 18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제28대 주지 진산식을 갖는다. 스님은 3월9일 법주사 산중총회에서 주지로 추천됐다.

운제스님 1주기 추모법회
 금릉 태고종 법륜사 주지는 16일 오전 11시 파주군 적성면 설마리 법륜사에서 지난해 4월 입적한 운제 이영무 스님 1주기 추모법회와 부도 제막식을 봉행한다. (0348)959-4566

금강둔치서 방생법회
 진허 마곡사 주지는 7일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신도 등 사부대중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둔치공원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북한 조불련에 승용차 전달
 명진 민족화합 불교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은 3월27일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를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승용차를 전달했다.

천태산 영국사 순례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12일 금강에서 방생법회를 갖고 천태산 영국사로 성지순례를 간다. 동참금 2만원. (0331)245-7048

수원시 연꽃시진전
 선암 스님(사진가)은 11~24일 수원 탄석공원내 미술전시관 제3관에서 환경, 역사, 생명의 문화도시를 위한

불교진흥원 이사장 상태 거사 별세
 장상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동국제강 명예회장)가 4일 오전 8시40분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영결식은 8일 동국제강본사에서 있었으며 별제장묘사업소에서 화장해 선영 납골당에 안치됐다. 장상태 이사는 64년 선친 장경호 창업주의 뒤를 이어 동국제강 사장으로 취임한 후 40년 가까이 철강업에 종사했다. 평소 무소유를 생활철

아름다운 수원만들기 연꽃사진전을 연다. (02)312-0228

교육발전 공로 총리 표창
 승욱 고성 육천사 청련암 주지(본지 고성지국장)는 3월24일 정부로부터 교육발전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수화 천불가 발표회 가져
 해성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장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한다는 취지로 30일 오후 3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수화 천불가 발표회'를 갖는다.

조선족시인 초청 시낭송회
 이근후 이화여대 교수는 20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예미의 집에서 '조선족 시인 석화(石華) 초청 시낭송회'를 연다. 석씨는 중국 연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으로 98년 '정지용 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02)732-8144

송석구 총장 초청 법회
 김두원 광주·전남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은 8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불우이웃들을 위한 동국대 송석구 총장 초청 대법회를 개최했다.

'보조의 禪敎 일치' 발표
 이병욱 고려대 강사는 22일 보조 사상연구원 제27차 월례발표회에서 '보조의 선교(禪敎)일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02)733-5335

학으로 삼고 있던 장 이사는 98년에는 사제 1백여원을 들여 재단법인 대원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대원문화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무의탁 노인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hia.com)

“불교 사회역할 강화 바람직”

역사학자 이이화씨 조계사서 열린강좌

“비구니 스님도 중흥이나 분사 주지를 해야 하고 사찰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야기 한국사〉의 저자이자 불자인 이이화씨는 1일 조계사가 개최한 열린강연회에서 ‘한국사에 나타난 불교의 두 얼굴’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시간동안 진행된 강의에서 이씨는 우리 나라 불교의 수용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흥망성쇠, 타락과 개혁 등 불교가 한국사에서 보여준 양면적인 모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불교는 자연·환경·민족·지역감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고칠 건 고쳐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며 불교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병초’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조선 후기 사회가 혼란할 때 병초불교는 비밀결사 운동으로 사회변혁의 한 세력을 의미했다”며 불교의 자기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강화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한 청중이 던진 ‘대처승을 어떻게 보여준 양면적인 모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불교는 자연·환경·민족·지역감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고칠 건 고쳐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며 불교의 혁신을 강조했다.



때 대처승이 포교를 맡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hia.com)



봉은사 법왕루 낙성식 봉행

봉은사(주지 원혜)는 5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과 주지 원혜 스님 등 사부대중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왕루 낙성식을 봉행했다.

법왕루는 대웅전과 선불당안으로는 신도들의 기도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마련된 기도공간으로 쓰이게 된다. 연건평 288평에 전면 7칸 측면 4칸 맞배집 고려양식의 건물로. 봉은사는 이번 법왕루 완공으로 지역포교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해인불교교양대학 개원법회

해인선원 부설 해인불교교양대학(학장 정우)은 6일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보광 해인총림 주지, 무구 경주 지장암 주지, 영화배우 엄앵란씨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장 정우 스님은 “어려운 불교교리를 쉽게 전할 수 있는 도심포교의 장으로서 불교교양대학을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석불선양회 돌부처 친견법회

한국석불선양회는 2일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 용운사에서 제2회 야외 돌부처 친견법회를 개최했다. 선양회원들은 석조 비로자나부처님 전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양물을 올리고 예불을 드렸다. 또 오후에는 소쩍새마을을 방문, 원생들과 함께 법회를 보고 후원품도 전달했다. 이귀인 명예기자

부처님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

사이클 세계일주 네팔인 푸스카 사하



“부처님 가르침처럼 세계는 하나였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사이클로 13개국 1만 5천km를 달린 네팔인 푸스카 사하(Pushkar Shah, 30) 씨의 첫머리다.

사이클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사하 씨가 세계 무어를 결행한 것은 ‘부처님이 태어난 성스러운 땅, 룸비니’를 알리고 또 ‘부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룸비니의 흙이 담겨 있는 ‘룸비니 목걸이’를 들고, 98년 네팔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히말라야 산골 돌카(Dolkha)에서 출발, 인도와 파키스탄 등을 거쳐 3월 25일 한국에 왔다.

외국어대에서 불교학석회 회원들을 만났을 때, 말보다는 심심(信心)으로 통할 수 있어 좋았다

는 사하 씨는 “부처님에 가고 싶어요. 그곳에 불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에게 ‘룸비니 목걸이’를 나눠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사실 사하 씨는 이번 사이클 투어를 룸비니를 알리는 것 외에도 ‘바다’를 보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이 있다. 네팔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이다.

사하 씨의 대장정은 홍콩의 영자지 ‘스탠다드’를 비롯, 중국·태국 등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스폰서 없이 맨주먹으로 움직이다 보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돈이 떨어져 굶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밤 공기를 이불삼아 야외에서 잔 적도 부지기수. 길을 잃어 정글 속에 며칠간 갇히는 아찔한 경험도 했다.

사하 씨는 아시아 일주를 끝내고 나면 아메리카 유럽대륙을 거쳐 아프리카를 종단하며 세계일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하 씨는 13일 다음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떠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hia.com)

“개종하는 불자 막고 싶어 시작”

캐나다 무료 이민정보센터 운영 이승용씨



어났다. 이씨가 ‘이민정보센터’를 설립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이민정보센터에는 이 씨를 비롯해 한기남(37), 한세구(45), 윤홍조(55) 등 불광사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모두 이민의 실용을 듣고 당당하게 일어난 불자들이다.

이민정보센터는 공화 안내에서부터 집과 자녀들의 학교 문제, 그리고 일자리까지도 이민생활의 모든 문제를 알선할 계획. 이 같은 도움이 ‘모두 무료’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 씨는, “이민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는다면, 2~3년까지 걸리는 이민 적용기를 6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씨들 4명은 취직·사업·주택·교육 등을 서로 분담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보았다. 이승용 씨는 “이 서비스는 캐나다에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한국 사찰에 젊은 불자들이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불자들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메일 계정은 이승용(sylee@netvigator.ca), 윤홍조(hangchoyun@hanmail.net), 한세구(hanseikoo@yahoo.com), 한기남(knhan@idirect.com) 등이다. 오종욱 기자

봉축 기념

연등 시연

한마음선원 대구지친 청년회(회장 박준석)는 5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연등시연회를 열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이번 연등시연회는 시민들에게 오색컵 연등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청년회는 연등시연회를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해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로 제작, 판매합니다.

해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택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661725-89-144651
예금주 : 최종웅
금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제2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2nd Academic Award Of Jingak Order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관련 연구 특히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진각논문대상’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 주제 : 불교일반 (불교관련 제반분야 포함)
 밀교일반 (밀교관련 제반분야·진각종 교학 포함)
-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 전형방법 : 인적사항 1부 및 논문계획서 1부
- ▶ 전형일정 : 접수마감 - 2000년 5월 6일(토)
 당선작 발표 - 5월18일
 당선논문발표회 - 10월 13일(금)
- ▶ 당선작 및 상금 : 불교분야 2~3편·밀교분야 2~3편, 상금 각 200만원
- ▶ 접수처 : 136-132 서울시 성북구 월곡2동 22.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합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e-mail : jingak@chollian.net
 전화 (02) 913-0133, 0134 / 전송 (02) 913-0135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다른 논문 응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진각종